

공직사회의 외부요인이 공직부패에 미치는 영향

배영민¹, 한승조^{2*}

¹김천대학교 ICT군사학부 교수, ²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Effects of External Factors on Corruption in Government Society

Young-Min Bae¹, Seung-Jo Han^{2*}

¹Professor, Division of ICT Military, Gimcheon University,

²Senior Researcher,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 부정부패 수준은 상당하며, 더 나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이나 사회 연결망 이론에 비추어 공직사회도 한 국가의 일부로써 공직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이 정의되어 모델이 구축 되었으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공직사회, 부정부패, 구조방정식, 시스템 이론, 사회 연결망 이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xternal-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ociety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nd to seek ways to reduce corruption in the public society. Currently the level of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that people think is still large,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duce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one society is a part of a country in system theory and social network theory, public society needs quantitative research in order to find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solve them. The model was built and the variables were defined in SEM based on 600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analysis,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has decrea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licitation and graft law, and socio-cultural factors have had a direct impact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The further research area is to seek detailed ways for transforming the education and awareness of civil society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o the efforts of the public officials themselves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Key Words : Government Society, Corruption, Structural Equation, System Theory, Social Network Theory

*This questionnaire data makes use of research material produc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and has been authorized for use according to KIPA's regulations on the ownership and use of research material.

*Corresponding Author : Seung-Jo Han(seungjo1651@add.re.kr)

Received July 28, 2020

Revised August 6,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란 시에 국가 경쟁력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 리더쉽 차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시 민간 분야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도부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보다 공직사회에서 공직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진전된 것은 틀림이 없다. 단순히 법의 해석과 사례를 전파하거나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기관별로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저촉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실시간에 공유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순히 공직사회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즉, 한 국가에 속한 조직의 일부로서 민간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유영현 연구에 의하면 공직 부정부패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인 요인, 행정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요인에는 전체 사회의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다[1]. 조운행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인 요인의 구체적인 공직부패 원인으로써 연고·혈연·운정주의와 같은 유교적인 사회문화로 인한 집대문화 존재, 결과 중심의 과정 무시 문화와 집단 이기주의, 시민 및 시민단체 등에서의 참여와 통제 부족을 제시하고 있다[2]. 하지만 위 연구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들은 정성적으로 민간의 사회적인 요인이 공직부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지만, 모델의 구성 및 분석과 구성된 모델을 통한 정량적 분석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Research Gap). 즉,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민간의 사회적 요인이 공직부패에 구조적이고 정량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특성이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모델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고, 공직사회를 벗어나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공직부패의 원인을 바라보고 해결책

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는데 있다.

2. 공직부패와 국가경쟁력

국가 경쟁력은 한 국가의 유형과 무형의 모든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경쟁력을 뜻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평가 및 자료 공개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고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141개 조사 대상 국가 중 13위로 전년도에 비해 2단계가 상승되었다[4].

Rank	Economy	Score ¹	Diff. from 2018 ²	
			Rank	Score
1	Singapore	84.8	+1	+1.3
2	United States	83.7	-1	-2.0
3	Hong Kong SAR	83.1	+4	+0.9
4	Netherlands	82.4	+2	-
5	Switzerland	82.3	-1	-0.3
6	Japan	82.3	-1	-0.2
7	Germany	81.8	-4	-1.0
8	Sweden	81.2	+1	-0.4
9	United Kingdom	81.2	-1	-0.8
10	Denmark	81.2	-	+0.6
11	Finland	80.2	-	-
12	Taiwan, China	80.2	+1	+1.0
13	Korea, Rep.	79.6	+2	+0.8
14	Canada	79.6	-2	-0.3
15	France	78.8	+2	+0.8
16	Australia	78.7	-2	-0.1
17	Norway	78.1	-1	-0.1
18	Luxembourg	77.0	+1	+0.4
19	New Zealand	76.7	-1	-0.8
20	Israel	76.7	-	+0.1

Fig. 1.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by country[4]

WEF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Enabling environment · Markets · Human capital · Innovation ecosystem로 구분하고 있으며, Enabling environment에는 공공분야 수행도와 공공부문 투명성 등을 포함되어 있다. 투명성 분야에 부정부패 사고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공직분야의 부정부패의 중요도는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국가 쇠락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쇠락의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로마제국의 쇠퇴나 중국 명나라 멸망의 원인 중의 하나를 왕족 및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보고 있으며[5], 중국 진나라에서 진시 황제 사후 환관들의 부정부패로 견마지로(犬馬之勞)라는 고사 성어가 생긴 것도 널리 알려진 바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권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3.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사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 SNT)은 사회 구성원들이 연계(Linkage)되어 있어서, 연계된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SNT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자기 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통의 이익을 위해 연결망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특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6].

사회 구조 속에서 연결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부패유발자, 포섭대상자, 부패가담자, 자원이 갖추어져야 하며, 특히 자원에는 물리적인 것 외에도 무형의 대가 등도 포함된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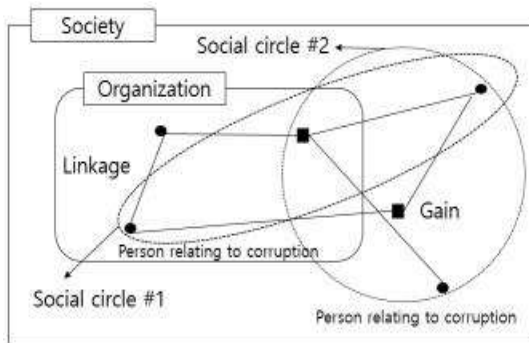


Fig. 2. SNT relating to Public Corruption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은 주로 공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에 사회과학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이론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일정한 목적을 지닌 하위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유기적 활동 등을 분석한다.

한승조의 연구에서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시스템 이론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국가는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하위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요소들 간 혹은 구성요소가 결합된 조직이 국제사회라는 외부환

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8]. SNT와 시스템 이론을 접목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원인 측면 분야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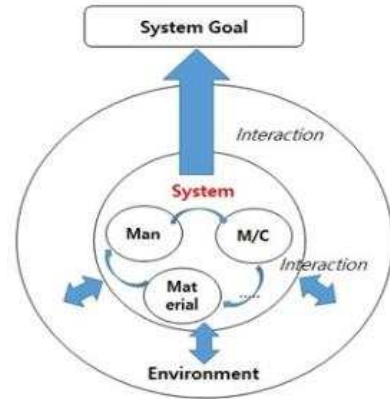


Fig. 3. System Theory[8]

첫째, 공직사회도 공공의 목적(예, 주민 편의 제공, 국가 정책 성공에 기여 등)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직자, 시설, 법적 및 행정적 권한 등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며, 하나의 공공기관은 외부의 타 공공기관 및 사회의 여러 기관 및 개인들과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외부의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범위에는 사회로부터의 인력이 공급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셋째,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력은 민간사회에서의 생활 및 문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공직사회에 반영될 수 있다.

넷째,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많이 있더라도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와 같이 민간사회와의 연결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자원이란 유혹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만의 노력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공직사회만을 고려한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을 고려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위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공직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민간사회와의 관계, 민간으로부터 유입되는 공직자들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 및 SNT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 사회에서의 부정부패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용인문화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H1). 둘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최종적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H2).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 수준 변화와 공직분야 보수(임금)가 공직부패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4.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4.1 분석 방법

한국 행정연구원에서는 2018. 7월 ~ 8월 기간 중에 전국 일반기업체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e-mail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원 홈페이지(www.kipa.re.kr)를 통해서 필요 인원에게 적법한 절차(인증 등)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본 설계와 관련하여 모집단을 전국 일반기업체 종사자로 두고, 표본추출은 지역 및 업종 비례층화표본추출 방법(모집단에서 각 층이 정하는 비례에 따라 각 층의 크기를 할당하여 표본 추출)이 적용되었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		Num.	Freq.(%)
Gender	Male	246	41.00
	Female	354	59.00
Age	20s	98	16.33
	30s	217	36.17
	40s	170	28.33
	50s	83	13.83
	> 60s	32	5.33
Final education	< Middle Sch.	2	0.33
	High Sch.	74	12.33
	College(2 yr)	112	18.67
	Drop out of college or Univ.	18	3.00
	Univ.(4 yr)	347	57.83
	> Graduate Sch.	47	7.83

통계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구조방정식 모델(SEM)은 일반적으로 설문으로 얻어진 수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수(Variable)들 간의 원인과 결과를 정량적으로 설명한다. 통상 변수 중에 독립이나 종속변수는 잠

재변수(Latent Variable)로 분류하며, 측정 가능한 여러 가지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가 모여서 하나의 잠재변수를 구성한다[9,10]. 특히, 각 관측변수는 추후 모델 내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 5, 6, 7점 척도법(Likert scale) 등으로 평가되어 모델에서 활용된다.

연구 주제가 연구자에 의해 정의되고 추상적인 인과관계가 염출되면, 일단 잠재변수들의 인과관계로 나타난 후 잠재변수에 관련 있는 관측변수들을 지정하여 경로도를 시각적으로 작성한다.

데이터를 입력하여 통계적인 결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다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AMOS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관측변수들의 자료들이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하고,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적용된다[9,10]. 아래에서의 구조방정식 모델 구축 및 분석은 AMOS Ver. 21이 이용되었다.

4.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정부패 수준

공공부문(행정기관)과 민간부문(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부정부패 정도를 대응표본 t-Test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다고 분석되었다. 설문 시 심각도 측정은 6점 척도법을 이용하였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심각도가 크다고 해석한다.

Table 2. Corruption level in public and civil sectors

Sector	AVE.	S.D.	p-value
Public	3.43	1.23	< 0.00
Civil	3.81	1.30	

이러한 결과는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력이 반영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Table. 3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공분야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을 경우 6점 척도법에 의해 최대 6점을 부여하고, 최소 1점을 부여하도록 설문이 이루어졌다.

Table. 3에서와 같이 4개 문항에서 모두 4점(약간 그렇게 됨) 이상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통해 볼 때 앞서 설명한 청탁금지법이 공공부문 부정부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Table. 2에서의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부정부패 정도가 약하게 나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부문 중 행정기능별 부패정도에 대한 설문

에서 법조 > 건축/건설/공수 > 경찰 > 조달/발주 > 국방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할 것으로 조사결과 분석되었다.

Table 3. Level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 graft Law

Questions	AVE.	S.D.
Paying attention to the payment method and amount of money when dining with officials	4.52	1.05
Reducing the frequency of giving gifts or entertainment to public officials	4.41	1.04
The number of giving condolence or congratulatory money to public officials has been reduced	4.22	1.10
The number of requests to public officials has been reduced	4.14	1.10

Table 4. Corruption level in each public sectors

Sectors	AVE.	S.D.	Rank
Tax	3.41	1.18	
Police	3.81	1.34	3
Fire	2.48	1.09	
Court, Prosecution	4.12	1.37	1
Environment	3.20	1.20	
Health, Medical	3.19	1.20	
Food, Hygiene	3.43	1.24	
Architecture, Construction	4.11	1.38	2
Procurement	3.75	1.32	4
Education	3.37	1.28	
Military service	3.45	1.34	
Military	3.67	1.41	5
Social welfare	3.07	1.19	
Customs, Immigration	3.21	1.21	
Prison administration	3.13	1.17	
Science	2.84	1.06	
Culture, Sport	3.16	1.24	

4.3 구조 방정식을 통한 공공부문 부정부패 인과관계 분석

공공부문 부정부패(C)의 수준은 Table. 5에서와 같이 3개의 관측변수로 측정되었다. 6점 척도법이 사용되었으며 6에 가까울수록 부정부패에 대한 심각도를 크게 느낀다고 해석한다. 또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관측변수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하며[9,10], Table 5와 같이 유의수준 0.05 기준 -1.965 ~ +1.965 범위 내에 통계량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5가 공공부문 부정부패의 결과라면, Table. 6은 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용인문화 측면(A, Social acceptance culture to corruption)과 공직자 내부 문화 측면(B, Culture to corruption in public sector)에서의 관측변수들 및 이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5. Overall level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C	Questions	AVE.	S.D.	Skewness	Kurtosis
C1	Level of providing money, entertainment, and convenience to public officials	2.82	1.32	0.38	-0.54
C2	Level of public officials' receiving money, entertainment, convenience	3.04	1.28	0.21	-0.44
C3	Level of public officials' receiving requests from civilian or mediating ones to another public officials	3.02	1.28	0.19	-0.56

Table 6. Causes of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A,B	Questions	AVE.	S.D.	Skewness	Kurtosis	
A	A1	Practices in business processing such as gifts, money, etc.	4.30	1.16	-0.68	0.55
	A2	Irregularity culture across overall society	4.39	1.13	-0.67	0.57
	A3	Citizens' consciousness expecting goodness and preference	4.28	1.14	-0.68	0.61
	A4	Using private relationships such as area and academic ties	4.74	1.15	-0.87	0.71
B	B1	Low payment in public officials	3.13	1.29	0.12	-0.48
	B2	Lack of individual ethical awareness	4.32	1.18	-0.59	0.35
	B3	Practices of bribe within the public society	4.40	1.14	-0.59	0.36
	B4	Discretionary discretion of public officials	4.14	1.17	-0.43	0.17
	B5	Lobby of retired officials	4.44	1.21	-0.58	0.07

Table 7. Results of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in observed variables

Obs. Var.	A1	A2	A3	A4	B1	B2	B3	B4	B5
A1	1	0.685	0.523	0.635	0.112	0.487	0.561	0.500	0.490
A2		1	0.6368	0.720	0.150	0.537	0.582	0.507	0.554
A3			1	0.681	0.230	0.433	0.490	0.429	0.476
A4				1	0.134	0.556	0.622	0.535	0.619
B1					1	0.185	0.190	0.272	0.165
B2						1	0.734	0.651	0.637
B3							1	0.670	0.682
B4								1	0.609
B5									1

Table 8. Running results of SEM

Lat. Var.	Obs. Var.	Estimate	S.E.	C.R.	P	Standardized Coefficient
A	A1	0.883	0.041	21.778	< 0.05	0.760
	A2	0.967	0.037	25.827	< 0.05	0.851
	A3	0.852	0.040	21.186	< 0.05	0.746
	A4	1	-	-	-	0.865
B	B1	0.343	0.060	5.678	< 0.05	0.241
	B2	1.066	0.050	21.411	< 0.05	0.823
	B3	1.102	0.048	22.976	< 0.05	0.875
	B4	1	-	-	-	0.777
	B5	1.044	0.052	20.270	< 0.05	0.786
C	C1	1	-	-	-	0.826
	C2	0.979	0.045	21.751	< 0.05	0.832
	C3	0.987	0.045	21.917	< 0.05	0.841

공공부문 부정부패(C)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재변수 A, B도 관측변수 9개에 대한 왜도 및 첨도가 허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다고 본다.

Table 7은 구조방정식 모델 내에서 관측변수 9개에 대한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를 나타내며, 모두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수행되어야 한다. A, B, C 잠재변수 별로 각각 3, 5, 4개의 관측변수가 연관되어 있으며, 각 잠재변수 별로 유사한 관측변수가 그룹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로써 관측변수들을 대표하는 잠재변수의 의미가 발생되어 추후 SEM에서 경로도가 구성되고 모델의 실행이 수행된다.

Table. 8은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4는 최종적인 SEM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AMOS를 통해 모델 적합도(Model Fit)[11,12]를 살펴보면 CFI(Compositive Fit Index) = 0.979, TLI(Tucker-Lewis Index) = 0.97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53으로 양호하게 모델이 모형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낮은 보수수준(B1)이 실질적인 부정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다른 윤리의식, 관행, 로비 등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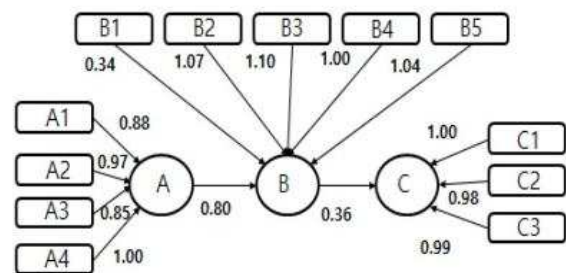


Fig. 4. Final SEM

또한, 모델의 타당도(Validity) 평가는 CR(Composite Reliability) 및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Table. 9와 같이 모델이 타당하였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CR은 0.7 이상, AVE

는 0.5 이상의 모델의 경우 모델의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13,14].

Table 9. Model validity

Lat. Var.	CR	AVE	Evaluation
A	0.882	0.652	Valid
B	0.843	0.545	
C	0.872	0.694	

설문을 통한 정량적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결과 앞에서 설정한 가설 H1, H2는 모두 기각되지 않는다.

즉,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민간사회와의 연계(Linkage)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책 외에도 근본적으로 국가 및 사회 전반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확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분야

본 연구에서는 600명의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함의(含意)함을 알 수 있다.

전수일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으로 공직행동강령의 구체화 및 처벌 강화, 공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용비의 회계투명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의 감시 강화 및 고발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15,16]. 여기서 공직행동 강령의 구체화는 이미 청탁금지법으로 발전되었으며, 회계투명화 및 시민단체 등의 감사·고발 강화는 공직 내부 및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수행해야 될 과제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앞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시스템 및 사회 연결망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에 정성적으로 연구되었던 유영현의 연구[1] 및 조운행의 연구결과[2]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백완기 등의 연구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유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부패유발자와 포섭대상자 간의 직거래 관계, 공무원이 부패유발자와 포섭대상자가 되는 경우, 민간인이 부패유발자이고 공무원이 포섭대상자나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7].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간인과 관계된 경우, 공직사회 외부적인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정부패를 줄이는 해결책 중의 하나로써 공직사회 단독의 노력보다는 민간사회와이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7]. 본 연구에서도 제시한 공직사회 외적인 요인에서의 인식의 전환 및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백완기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정성적으로 공직사회 외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은 추후에 더욱 연구되어야 한다.

첫째, 결론부분에서 제시한 공직사회와 외부환경과의 공동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되고, 필요 시 방안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단지 민간분야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것만 다루었다. 하지만 공직사회 자체적인 인식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제외된 관계로 추후 이 분야도 연구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였지만, 필요 시 각 공공부분별로 세분화(예, 행정부, 국방부, 사법분야 등)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다.

REFERENCES

- [1] Y. H. You. (2002).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Service(Research report)*. Cheonnam : Sehan Univ..
- [2] U. H. Cho. (2005). A Study on the Causes and Policy Alternatives of Public Employees' Corruption. *The journal of professional management*, 8(1), 119-151. UCI : G704-SER000009850.2005.8.1.003
- [3] C. H. Choi & Y. G. Chae. (2019). A study on the trend of Korea's media pres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J. Internet Comput. Serv.*, 20(1), 97-111. DOI : 10.7472/jksii.2019.20.1.97
- [4] Hankyoreh. (2019. 10. 9). *S. Korea ranks 13th in WEF's 201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english.hani.co.kr.
- [5] Shiminilbo. (2019. 12. 22). *Corruption, national rise and fall, and integrity*. www.shiminilbo.co.kr

- [6] Y. S. Yang & H. Y. Hwang. (2005). Evolutionary and Validity Analysis of Korean New Venture Promotion Policy by Utilizing Social Network Theory - In the center of Venture Financing Circular Network. *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7(1), 152-186.
- [7] W. K. Paik, S. I. Jeon & T. K. Ha. etc. (2000). Study on the Corruption in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Network Theo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4(2), 79-100.
UCI : G300-j12262536.v34n2p79
- [8] S. J. Han. (2019). (A) Study of Deriving Military Weather-Modification Technologies Suitable for Korean Environment and It's Establishment. Chungnam Univ. Ph. D. Dissertation.
UCI : I804:25009-000000080273
- [9] S. J. Han. (2017). (A) Study on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Awareness of Unific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7.
DOI : 10.14400/JDC.2017.15.10.1
- [10] S. J. Han & S. H. Lee. (2019). The Effects of Familiarity with Unmanned Technology on Expectation of Development in Ground Forc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19(5), 91-98.
DOI : 10.33778/kcsa.2019.19.5.091
- [11] J. H. Kim. (2007). A study on school effect analysis using the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based on PISA 3003 data. Seoul: Korea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 [12] J. P. Woo. (2015). The Item Parceling Bias of Multi-Dimensionality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Academy Society of Biz Administration*, 44(4), 1147-1147.
DOI : 10.17287/kmr.2015.44.4.1131
- [13] H. G. Baek, P. S. Kim & T. H. Ha. (2008). Study on the Effective Factors of Learning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the Digital Textbook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1), 123-135.
UCI : G704-002010.2008.6.1.010
- [14] S. Y. Oh. (2017). The Empirical Study of Various Item Parceling Methods on Multidimensional Scales in CFA and SEM,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9(2), 313-345.
DOI : 10.17927/tkjems.2017.29.2.313
- [15] S. I. Jeon. (2007). Improving Devices for Korean Social Reception Cultur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1(4), 253-277.
DOI : 10.24210/kapm.2007.21.4.011
- [16] S. I. Kim & Y. H. Lee. (2014). Legal Alternative plan for public servant Ethic A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 61-70.
DOI : 10.14400/JDPM.2014.12.1.61

배 영 민(Young-Min Bae)

[충원]



- 1998년 2월 : 육군사관학교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ICT 군사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의사결정, 최적화, 국방 전력지원체계
- E-Mail : c13001@naver.com

한 승 조(Seung-Jo Han)

[충원]



- 1998년 2월 : 육군사관학교
- 2002년 2월 : KAIST 산업공학과(공학석사)
- 2002년 2월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1년 9월 : 미)뉴욕주립대 산업공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공학박사)
- 2019년 8월 : 충남대학교 군사학과(군사학박사)
- 2014년 10월 ~ 현재 : 국방과학연구소(ADD) 선임연구원
- 관심분야 : 무기체계, 인간공학, 의사결정
- E-Mail : seungjo1651@add.re.kr